\* 우만레 유한회사의 역사

우만레 유한회사의 역사를 따지려면 2007년('철통같은 믿음으로'의 시작 시간대인 1952년과 맞지 않지만, 이 모드 세계관 상 별 상관이 없다)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. 그 당시 일부 건담 오타쿠들의 소소한 모임처였던 '엔젤하이로'라는 곳에서 정말 심심해서 자기들끼리 이것저것 정보를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하였다. 그 시스템의 이름은 '엔젤하이로 위키'였다. 이후 전 세계(조금 과장이 있다지만 알 게 뭐야(...))의 위키페어리들이 자발적인(이라고 쓰고 무급노예질이라고 읽어야 하는) 기여를 통해 엔젤하이로 위키는 거대한 지식정보체(...)로 성장해 갔다. 그러나 엔젤하이로 위키가 이만큼 성장해 갈수록, 본래 본진이었던 '엔젤하이로'보다 더욱 커져버린 상황이 벌어졌고, 이에 엔젤하이로의 운영자 중 하나였던 '청동'이 엔젤하이로 위키를 가지고 분리독립하기로 합의, 엔젤하이로 위키는 2012년에 독자적인 '리그베다 위키'로 개명하게 되었다.

엔젤하이로에서 분리된 것과 상관없이 리그베다 위키는 계속 지식복합체로 성장해 갔고, 그 위세(...)가 영원히 굳건하리라고 생각했지만, 2015년 4월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란이 닥쳤다. 리그베다 위키의 룰에 '당신이 기여한 것의 저작권은 본사에 귀속된다'라는 말이 있어. 위키페어리들의 자발적인 기여분이 모두 '청동'의 사유물이 된 것을 알게 된 리그베다 위키 인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, 리그베다 위키에 악감정을 가진 주변국들의 대대적인 항의와 무력시위가 이어졌지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'청동'은 어디론가 사라진 채 나타나지 않았다. 결국 리그베다 위키는 익명의 한 테러리스트에 의해 붕괴되었고, 그와 별개로 정체불명의 인물 'namu'라는 사람은 리그베다 위키의 모든 자산을 접수, '나무위키'라는 대체품을 만들었다.

나무위키는 구 리그베다 위키의 고립주의 정책과는 다르게, 적극적인 분쟁 개입을 채택했고,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 '여성시대'라는 곳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하여 큰 인지도를 쌓고, 외면적 성장에 큰 이점을 얻게 되었다. 하지만 이로 인한 폭발적인 외면적 성장으로 유입된 신규 인원을 감당할 재정적 여유가 없었고, 신원불명자의 운영 체계로는 안정적인 재원을 얻을 수 없었기에, 결국 2016년 5월 몇 주간 지속된 위키 내의 운영 관련 내분 끝에 나무위키는 '우만레 유한회사'라는 곳에 매각되고 만다.

하지만, 수많은 갈등을 겪으며 나무위키는 국제사회의 그 어떤 곳에서도 지지받고 있지 못하며,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동안 내부적으로는 크게 곯아떨어졌다. 설상가상으로, 우만레 유한회사라는 기업국가체제가 성립되며 과거와는 다르게 기업의 억압적인 감시체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.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? 우만레 유한회사는 '철통같은 믿음으로'의 세계에서 흑무주의나 가속주의, 혹은 그와 비슷한 상상을 초월한 것들 앞에서 무너지고 말 것인가, 아니면 이 세계에서 모든 것에 취소선을 쳐 지워버릴 것인가?

정당 이념:

기업국가주의: 우만레 유한회사(Umanle S.R.L) - 시작시 집권당

흑무주의: 디시위키 - 김유식의 쿠데타를 통해 집권 가능하며 집권 시 국명이 ‘디시위키’로 바뀜  
무정부주의: 반달리스트  
권위민주주의: 나무위키 운영진  
자유민주주의: 오타쿠  
사회민주주의: 나무위키 사관  
생디칼리즘: 나무위키 패션좌파  
공산주의: 나무위키 폐인  
파시즘: 나뮈병  
가속주의: 나무위키 내 불만분자